

(3) WFE 시장인프라 교육수료과정(MIC) 사업 경과보고

(Point)

- Market Infrastructure Certificate 코스 성공적 신설을 기원
- 본 사업의 협력 교육기관 (Academic Partner) 선정 후보로 지금 2곳도 충분(Bayes, London)하다고 생각
- WFE 내 MIC 자문기구(Advisory Group) 설립 시 KRX 참가 희망

(사업개요)

- 협력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 + 오프라인 수업 + WFE 회원 현장 실습 + 최종 시험(온라인)으로 구성된 약 12-16주 교육 수료 과정
- 매 기수별 현장 실습을 초대하는 WFE 회원을 'Host MI'로 지칭
- '22년 말 MIC 1기 진행 준비 중이며 아직 협력 교육기관 선정 단계

☐ 시장인프라 교육수료과정(MIC) 신설에 앞장서는 WFE에 감사

[Discussion Topics 항목별 코멘트]

Topic 1. 협력 교육기관 선정 과정 또는 WFE의 제안에 대한 코멘트 or 질문?

- ☐ 먼저, MIC 협력 교육기관 선정 과정은 다각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WFE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함(Legitimate)
- ☐ 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음
 - Bayes Business School의 경우 원격 수업 시즌(Virtual Session)에 제공되는 모듈 1,2,3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?
 - London Business School의 Self-directed Sessions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? 화상 수업이 있는 것인지? 교재만 제공되는지?
- ☐ 추후 제안서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기를 희망

Topic 2. MIC는 MBA나 MFin 같은 학위 학점(Credit)을 인정 받아야 할까?

- ☐ 과정 참가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학점 인정이 큰 메리트라 생각
 - 다만 아직 MIC가 신설되고 자리 잡기 이전인 상태에서 학점 이수 과정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우려
 - MIC 실시 이후 산업과 학계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학점 인정 과정으로 정착하는 ‘단계적 접근’도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

Topic 3. WFE가 과정 참가자 선발 과정을 주관해야 하는가?

- ☐ 특정 대학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WFE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만큼 과정 참가자 선발권을 WFE가 갖는 것이 타당
- ☐ WFE TEAM에서 매 기수별 참가자 선발 진행이 행정적으로 큰 업무 부담이 된다면 향후 신설될 MIC 자문그룹의 이를 보조하는 것도 방법

Topic 4. MIC 참가자의 수료 통과기준 80%는 너무 높은가, 낮은가?

- ☐ 상대평가-절대평가 여부, KPI의 기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,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을 일괄적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80%는 높은 감이 있음
- ☐ 물론 너무 기준이 낮으면 전문가 양성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 발생
- ☐ 이를 고려시 절대평가 형태에서 70 내지 75% 사이가 적정

Topic 5. KPI (Key Performance Indicators)에 대해 추가 의견?

☐ (추가 의견 없음)

Topic 6 & 7. WFE가 추가 후보 모색 또는 Saïd school의 제안서 제출 여부결정을 기다려야하는지?

- ☐ 이미 훌륭한 두 협력 기관 후보가 있고, WFE가 정한 타임라인이 있음
- ☐ 후보 모색이나 Saïd school와의 협의가 과도하게 길어질 필요 없음
- ☐ 따라서 이사회 이후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후보자 최종 선정 진행을 권유

마무리

- ☐ 추후에 MIC 자문기구가 설립되면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장 적합한 협력 교육기관을 최종 선택하기를 기대
- ☐ KRX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발족을 기원하며, MIC 자문기구 설립 시 이에 참여할 의사 있음